

# 취식허용·대작개봉... 영화관, 2년만에 관람객들로 '복적'

지난 5~8일 총 관객수 331만여명  
직전주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  
'닥터 스트레인지2' 300만 관객  
취식허용 이후 매점매출 5.3배 ↑  
코로나로 줄인 인력 정상화 안돼  
현장 직원들 과로 호소하기도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섭취 제한이 해제된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한 대형 영화관을 찾은 손님들이 매점을 방문해 음식물을 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화관 관객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CGV에서 시민들이 영화 상영 시간표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후 2년여만에 영화관이 모처럼 관객들로 복적였다. 영화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감독 샘 레이미, 이하 닥터 스트레인지2)가 개봉했고, 영화관 취식 허용으로 영화관을 찾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

일반적으로 영화관의 성수기는 7~8월이지만,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지난 주말까지 관객 수는 업계의 예상을 넘어섰다.

◆**마블 신작 이어 한국 영화도 개봉 앞뒀**  
9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5일부터 8일까지 총 관객수는 331만 2712명이다. 직전 주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는 마블 신작 개봉과 주말까지 이어지는 휴일 덕분에 관객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극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2'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최고 오프닝 스코어, 최단기간 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개봉 전 날 사전예매량 100만장을 넘기며 흥행을 예고한 바 있으며, 개봉 첫날인 4일 하루 관객 71만여명을 동원했다. 해당 영화는 북미에서도 개봉 첫 주말 역대 11위, 오프닝 스코어 1억8500만 달러(2350억원)를 달성했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

기가 해제되고 상영관 안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 등을 먹을 수 있도록 취식이 허용되면서 관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며 "'닥터 스트레인지2'에 이어 한국 영화 기대작인 '범죄도시2'도 개봉한다.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팝콘 기계 실 틈 없다**

매점 사업도 활기를 되찾았다. CJ CGV는 영화관 내 취식이 허용된 지난 달 25일 이후 어린이날까지 매점 매출이 취식 금지 기간이었던 직전 11일(4월14-

24일)과 비교해 5.3배 늘었다고 밝혔다.

CGV에 따르면 취식 허용 이전 관객 10명 중 2명에 불과했던 팝콘 구매비율이 허용 이후 7명까지 늘었다. 코로나 19 이전 3000억원대에 육박했던 매점 매출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800억원 대로 떨어져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던 만큼 전체 매출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시네마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5~8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입장객 및 매점 매출은 실내 취식 제한 해제 이전인 2주전 동기 대비 각각 570%, 1379% 이상 상승했다.

◆**"인력 충원 해달라" 현장 직원 불만도**  
영화관 현장 직원들은 갑자기 늘어난 관객들로 인해 과로를 호소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 직원들의 불만글이 올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많아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인력은 정상화되지 않았다고 토로한 것.

게시물 작성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영화관마다 직원이 6~7명 있었고, 아르바이트생들도 20~50명씩 있었지만, 지금은 직원 3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영화관 취식이 가능해졌고 모두가 잘될 거라 예상했던 '닥터 스트레인지2'가 개봉했는데도 본사는 옥수수, 오일, 팝콘컵, 폴라캡 등 기본 물품들을 보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GV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대비해 충원을 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관객이 모여 현장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우유·바닐라 함량 2배로... 월드콘 '리뉴얼'

롯데제과, 바닐라 향 RA인증 제품  
1988년부터 콘시장 판매 부동의 1위

롯데제과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대표 콘 아이스크림 월드콘의 리뉴얼을 단행했다.

이번 리뉴얼에서 월드콘은 기존 우유 및 바닐라 향의 함량을 2배 가량 높였다. 이로 인해 부드럽고 고소한 우유 풍미와 달콤한 바닐라 향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바닐라 향은 친환경 레인 포레스트 얼라이언스(RA)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 친환경의 의미를 더했다. RA는 자연환경과 농업 공동체 보호에 기여하는 농장 및 원료에 부여하는 친환경 글로벌 인증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빨강에 파랑 색상, 별 문양 등 월드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하면



롯데제과 월드콘 4종 /롯데제과

서도 우유 함량 증대 문구 및 RA인증 마크 등의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

롯데제과는 제품 출시 전 소비자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새로워진 월드콘에 대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 성공적인 리뉴얼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편 월드콘은 1986년 출시 이래로 지난해까지 약 1조6400억원의 누적 판매고를 기록했다. 개수로 따지면 약 30

억개가 판매됐다. 월드콘은 출시 2년만인 1988년부터 콘시장 전체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 이후 현재까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이는 크기와 맛을 비롯, 광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월드콘은 푸짐한 크기와 뛰어난 품질 등 기존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년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맛이 나 디자인을 적용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여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월드콘은 마다가스카르바닐라, 초코, 쿠키앤크림, 까마로사 딸기 등 4가지 맛 제품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여 국가대표 아이스크림으로서의 아성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지그재그, 브랜드관에 에잇세컨즈 입점

SPA 카테고리 상품군 다각화

카카오스타일의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9일 캐주얼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가 브랜드관에 입점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에서 운영하는 에잇세컨즈는 합리적인 가격 대비 높은 품질로 다채로운 콘셉트의 제품을 선보이는 국내 대표 SPA 브랜드다.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국내외 여러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특색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며 MZ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지그재그는 에잇세컨즈 입점으로 브



/카카오스타일

랜드관 SPA 카테고리 상품군을 다각화했다. 기존 온라인 기반의 쇼핑물과 브랜드 위주로 입점되어 있던 플랫폼 형태에서 나아가 오프라인으로도 유통되는 대형 브랜드 에잇세컨즈가 입점하며 지그재그 스타일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원은미 기자

# 제너럴바이오, 美 생명공학 전문지서 인정

'아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톱' 선정

바이오연구개발 전문기업 제너럴바이오가 최근 미국 생명공학 전문지 '라이프 사이언스 리뷰'에서 '2022 아시아 태평양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톱 10'에 선정됐다.

제너럴바이오는 바이오 컨버전, 나노기술, 고분자 기술, 바이오 신소재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원료와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에 앞장서며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을 통한 가치 창출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화 지연과 관련된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티드,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티드에 관한 기술과 인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의 흡수를 돕는 MEBT 기술 개발을 통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혁신 제품 개발에 주력한 것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제너럴바이오의 대표 핵심기술 MEBT는 한국인 4명 중 1명이 소화하기 어려워 체내 흡수율이 5% 미만인 인삼의 고분자 사포닌을 저분자 컴파운드 K로

전환해 체내 흡수율을 높인 독자 기술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엄선된 효소 선별, 발표 온도, pH 등의 조건 최적화를 통해 고품질의 컴파운드 K를 생산하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제너럴바이오는 연구개발 외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사업을 통해 공정 프로세스 및 근로환경의 개선,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누야하우스와 동구발 등의 사회적 기업에 자체적으로 유행 비누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와 제조기술을 제공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원은미 기자

# 이대서울병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선정

8개 병원과 함께 연말까지 사업 수행

이대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컨소시엄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서울대병원 컨소시엄 8개 병원 중 하나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함께 올 12월 말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이대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임상 빅데이터 활용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제약사, ICT 기업

등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대서울병원은 선정된 8개 병원과 함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데이터 정보보안 계획 ▲질환별 특화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데이터 거버넌스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연구 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인 환자 치료와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도상 이대서울병원 정보화부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지원 기관으로서 양질의 대규모 의료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신약, 의료기기, AI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및 신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